

한국 전통 주거공간과 전통 가구 특성 비교

A Comparative Research on the character between Korean Traditional Housing and Furniture

류티에준
국민대학교 테크노디자인 대학원 실내디자인전공

Liu, Tie-Jun
Dept. of Interior Design, TED, KMU

최경란
국민대학교 조형대학 실내디자인학과

Choi, Kyung-Ran
Dept. of Interior Design, KMU

• Key words : The JoSeon Dynasty Period's Housing & Furniture ,Korean Traditional Culture, Confucianis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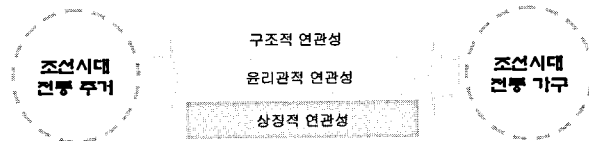
1. 서론

본 논문은 한국 조선시대 주거와 가구에 대한 다방면의 요소를 비교 분석하여, 양자 사이의 외형적 특징, 외형적 특징에 따른 내면적 특성, 그리고 내적인 여러 요소들간의 연계성을 서술하였으며, 주거와 가구의연계성을 이루는 사회 문화적 요인을 다루었다. 연구 방법은 비교분석을 기본으로 사용하고, 연구대상은 조선시대 양반의 주택과 가구를 설정한다.

1. 주거와 가구의 외부구조와 내부구조의 비교를 통해 구조적 유사성을 추출했다.2. 공간과 장식(문양 포함), 주거와 가구의 시문(詩文)등의 비교를 통해 상징적 유사성을 비교했다. 3. 주거 공간의 배치와 가구배치의 비교를 통해 배치의 의미가 갖는 윤리적 유사성을 설명했다. 이상 위의 세 가지 관계 분석도를 종합 정리하여 한국전통주거와 가구의 연관성 및 공통성을 제시했다.

조선시대 주거 공간과 가구 연계성의 비교 연구는 형태와 구조 및 사회와 문화사상을 결합시켜 한국의 전통주거와 가구의 형성 원인 및 주거와 가구의 형식과 기능을 이해하기 위한 것이다. 주거의 본질은 전통을 고수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것이다. 전통 주거와 가구의 관계를 연구 및 이해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직면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잣대로 삼기 위함이며, 공간과 사회의 양식을 개조하여 현대의 생활상에서 드러난 요구에 부응하는 것이다.

[표 1-1] 연구방법 분석



2. 조선시대 주거와 가구의 구조적 특성

2-1. 외부구조의 관계

한국 전통 주거의 건축적 외부 형태는 일반적으로 세 개의 부분, 즉 지붕, 집체, 그리고 기단으로 나뉘어, 시각적으로 사람들에게 안정감을 준다. 조선시대의 가구의 각 부분의 명칭을 살펴보면 궤짝의 기본구조는 천판(天板), 몸체, 마대(馬臺)로 나뉘어 알 수 있다. 천판이란 뚜껑처럼 가구의 제일 위에 있는 부분을 말하고, 마대는 가구 밑 다리 등을 가리키며, 몸체란 기둥, 판, 문틀, 서랍 등 네 가지 기본구조로 조합된 것을 일컫는다. 가구양식은 비록 주거 건축과 같진 않지만 전반적으로 분할되는 방식은 매우 비슷하다. 한 예로 제사를 지낼

때 사용하는 가구인 감실의 외형은 축소된 건축물로서 지붕, 집체, 기단의 구조를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2-2. 내부구조의 관계

조선 시대 가구 구조의 특징은 판재와 골재를 이용하여 면과 선이 연속적으로 구축된 것이다. 가구 구조 중에서도 변할 수 없는 부분을 기준으로 하여, 여러 독자적 부품들과 결합하고 이를 다양한 합리적 체계의 결합 방법으로 해결하였다. 대체적으로 이음새, 짜임새 그리고 붙임새, 이 세 가지 종류로 나뉘는데 그 중에서 이음새와 짜임새의 연결 방법은 가구 결구의 핵심이다. 소위 결합 방법이란 이음새와 다양한 짜임새의 목결구 연결이 접착제 사용 제조를 대체한 기법이다. 이음새와 짜임새의 연결방법은 외부에 접합의 부분이 나타나지 않게 할 수 있으며, 가구 내부 결구 또한 매우 견고하게 한다. 이는 가구뿐만 아니라 목재 건축 공예 등에서도 통용되는 구조로 목재 마름질 전반에 걸친 기본적인 짜임새와 건축, 가구에서 각기 특이하게 사용되는 짜임새이다.

3. 조선시대 주거와 가구의 상징적 특성

3-1. 주거의 상징적 의미

조선시대 거주평면형태는 유교사상과 풍수사상의 영향을 깊게 받았다. 집의 평면은 반드시 길상의 형태를 가져야 하기 때문에 일자 형식과 月자 형식, 也자, 口자 형식, 用자, 好用자와 같은 문자를 닮은 평면은 각기 의미를 달리하며, 공간에 적용된다.

유가의 '천인합일(天人合一)' 이라는 우주관의 영향을 받아 조선 시대의 주거 환경은 인간-주거-자연의 관계를 중시하였다. 이는 자연을 공부함으로써, 하늘과 사람은 이치가 같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이며, 그것은 사법자연, 천인동구(師法自然, 天人同構¹⁾)를 의미한다. 조선 시대의 주거와 가구의 재료는 천연 재료를 주로 사용했고, 주택을 축조할 때나 가구를 제작할 때 원자재의 특성을 거의 살려서 사용하여, 재료 원래의 질감을 최대한 표현하고자 했다.

3-2. 장식과 문양의 상징성 관계

한국의 주거건축과 가구의 장식문양은 한국인의 전통미 인식 표현 중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 주거 건축, 실내 공간 및 가구 가운데 전통 문화를 표현하는 방법 중 하나가 되었다. 그것은 사회, 경제 요인과 기후, 풍토 및 자연요인이 상호 작용하여 형성된 문화적 표상이다. 장식문양은 한국고유정신, 문화의 산물, 전통적 주거공간특색과 의의성을 지니고, 상호 작용 및 상호 결합하는 과

1)사법자연(師法自然):자연을 학습, 천인동구(天人同構): 1. 하나는 하늘과 사람은 동일한 재료로 형성. 2. 하늘과 사람은 서로 유사하고 서로 소통.

정 속에 장식 요소화 되어, 장기간의 반복변화를 통하여 한국인들의 사상성향과 문화의 복합체가 된 것이다.

주거건축 중에서 사용했던 문양은 벽, 지붕 등 건축 구성 부분에 나타났고, 동시에 천정, 창문, 난간, 문 등 실내 구성요소를 통해서도 나타났다. 가구 중의 장식문양은 가구의 각 부분에 나타났지만 그들의 표현 내용은 완전히 일치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정리해보면, 한국 전통 주거 공간과 가구에서 사용한 장식 문양은 상징성에 근거하여 (1) 귀신을 쫓고 수호하는데 쓰이는 문양 (2) 길상(吉祥)을 상징하는 문양 (3) 장수(長壽)를 상징하는 문양 (4) 종교적 의미를 상징하는 문양 (5) 인격을 상징하는 문양으로 분류된다.

식물, 동물, 문자 등을 모티프로 삼아, 사람들은 그 상징적 의미를 이용하여 앞으로의 이상적 미래에 대한 의지를 표현했고, 이러한 상징성의 표현수법을 통하여 주거자의 생활염원, 감정, 정신적 의탁 등을 전달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3. 조선시대 주거와 가구 중 시문(詩文)의 상징성 관계

조선시대에는 유가문화의 영향을 받고 문예수양의 유가인문교화(儒家人文教化)사상을 중시하였다. 시(詩)는 한국조선시대시학(詩學)과 한국인의 성격과 심미흥취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다. 온화하고 후한 시교(詩教)는 유가와 도덕이 문예의 교화사상에서의 귀결점이 되고, 이렇게 형성될 수 있었던 데는 시가 사람들의 기질을 변화시키고, 사람의 성질을 온화하게 하여, 언어가 미숙할지언정 우아하고 교양 있어 보이게 하기 때문이다. 기둥에 시구를 걸거나 가구에 적은 것은, 기둥에 시구를 걸거나 가구에 적은 것은, 세인들에게 경중을 울리고 교육하는 작용을 하였다.

4. 조선시대 주거와 가구의 윤리관적 특성

4-1. 주거 윤리관의 사회적 범위

조선 시대에는 송유억불(崇儒抑佛: 유가를 숭상하고 불교를 억제한다)하는 정책, 주희(朱熹)의 『소학(小學)』을 비롯하여, 송나라(宋代) 이학(理學) 2) 이 14세기에 조선에 들어갔다. 가정에서 가족에 윤리상의 등급이 있고, 부계와 모계를 포함하여 남자가 귀하고 여자는 비천하며, 나이로 상하를 나누고 적자친소(嫡庶親疏)의 구별로 각 개인 모두가 자신의 신분과 등급을 알게끔 하였다. 이러한 자아신분과 타인의 위치 관계에 근거하여 적당한 태도를 취하여 가정에서의 인간관계 정립하였다. 가정, 종족, 국가, 작은 단위의 것부터 큰 단위의 것에 이르기까지 한 층, 한 층이 쌓여 유가 윤리관에서의 사회등급제도와 사회 구성 방식을 형성한다.

4-2. 주거 윤리관의 공간 배치

조선 시대의 유교사상이 주거문화에 미친 영향은 '전승문화재본(傳承文化載體)' 한국주거로 이러한 가부장제(家父長制)의 상징은 사랑채의 형태로 나타난다. 특히 양반 주택의 경우, 그 특징 뚜렷하다. 양반주택은 신분을 구분하기 위하여 공간마다는 강한 폐쇄성을 나타내는 형태를 가지며, 솥을 대문이나 화려한 담을 사용하여 권위를 표현하고 있다. 주택 내의 생활영역도 남녀의 구분, 신분의 상하, 연령의 상하의 구분을 하고 있다. 전통 주거공간은 전체 공간을 이루고 있는 각 공간들의 연속성을 지니며, 동일

공간에서도 상하 신분제도에 의한 공간 분화를 보여준다. 또한 유교에서는 부모에 대한 효도와 조상을 숭배하는 일을 강조하고 있으므로 양반주택에는 제실(祭室)이나 사당(祠堂)을 두고 조상의 위패(位牌)를 모시고 있다. 신성한 장소로서 외부인이 쉽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입구에서 가장 먼 쪽에 배치되었고 담과 대문을 설치하였다.

4-3. 윤리관적 가구 유형과 배치

전통 가구는 일반적으로 생활하는 공간에 따라, 크게 안방 가구, 사랑방 가구, 주방 가구로 나뉜다. 남녀 칠세(男女七歲不同席)을 주장하는 유교사상의 영향으로 주거생활에 있어서 남녀의 생활 공간은 안채와 사랑채로 엄격히 구분되었으며, 이에 따라 가구와 자채기물(家財器物)에 있어서도 남녀간에 뚜렷한 구별이 생겨나게 되었다. 또한 실내 공간에서 가구의 배치와 사용에 따라 공간이 내부와 외부로 나뉘어진다. 병풍을 뒷 배경으로 주인이 앉는 내부 안쪽에 배치하고, 사랑방 내부공간의 가구자체 크기는 작아 때문에 이동이 용이하여, 가구가 공간에 가득 배치되어 공간을 구성하기로 한다. 손님의 수에 맞추어, 소형 가구를 사용하고, 손님이 떠난 후에는 배치한 소형가구를 치운다. 주인이 앉는 구역에 비해 외부구역의 가구배치는 비교적 느슨하다. 의미상의 내부와 외부의, 가구 크기 또한 다양하다. 사랑방 가구의 배치는 내부와 외부의 구분이 있어, 주와 객이 분명하면서도, 위, 아래의 관계가 명확하여, 유가의 윤리관적 공간질서가 그대로 반영됐다.

5. 결론

주거 역사는 우리에게 가구의 발전과정이 처음부터 주거건축과 관계있다는 것을 알려준다. 주거공간이 가구의 형태, 양식, 크기를 제한하는 동시에 주거건축 목구조 기술의 발전으로 조선시대 가구 목구조의 완성도를 높였다. 조선시대의 가구와 주거건축의 목구조 외부형태 및 내부연결 방식을 비교한 결과, 조선시대의 가구 양식과 목구조 기술, 그리고 주거건축 사이에는 서로 긴밀한 관계성이 있음을 살펴봤다. 가구의 목구조는 건축 목구조에서 비롯되어 한 걸음 심화된 것이고, 독자적인 조선시대 가구의 목구조체계를 완성시킨다.

주거건축은 공간의 분할과 한정, 가구 공간배치와 사용성 여부를 이용하여 사람의 계층을 구별한다. 이는 주거건축과 가구의 사용을 통해 사회질서를 조절하는 수단으로 삼은 것으로 학문과 문학을 통해 주거건축과 가구에 인문적 상징성을 부여하여, 한국 사람의 정신문화와 심미적 정서를 나타낸다. 또한 외부형태와 내부의구조적 특성을 보면 서로 간에 필연관계가 있다. 주거 윤리적 관계와 상징적 관계를 보면, 은유적으로 표현되어 심화된 관계로 정리된다. 이러한 결과는 바로 한국전통문화와 전통 가치관에서 비롯되었으며, 유가사상이 한국전통 주거와 가구문화에 대한 깊은 영향을 나타낸다.

참고 문헌

- 裴滿實, 『한국 木家具의 전통 양식』,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 신영훈,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우리 한옥』, 현암사, 2000
- 이상해, 『Traditional Korean Settlements and Dwellings』
- 朱南哲, 『韓國住宅建築』, 원리사, 1999
- 박영순, 『우리옛집이야기』, 열화당, 1998
- 김삼대자, 『전통 목가구』, 대원사, 1994

2) 이학(理學): 중국철학의 한 부류로, 송대로부터 시작하였고 대표적 인물은 주희(朱熹) (1130-1200)이다.